

“광주김치가 전국 최고”...‘K-미식여행’ 상품 추진

NEWS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시-한식진흥원-광주관광공사, 김치상품 개발 대통령상 김치여행 등 특화관광 프로젝트 전개 시, 오늘 서울역서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도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 김치를 주제로 한 K-미식 관광 벨트를 조성, 시민과 방문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24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K-미식벨트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K-미식벨트(김치벨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치를 테마로 지역 음식 명인, 미식체험 인프라, 맛집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유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K-미식벨트 조성사업’은 지역별 미식 자원과 관광상품을 연계해 국내 미식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중 하나다. 지난해 ‘장(醬) 벨트’를 시작으로 올해는 ‘김치’, ‘전통주’, ‘인삼’ 등 3개 벨트를 운영한다. 오는 2032년까지 총 30개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 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K-미식벨트 조성사업 공모에 광주시·광주

관광공사의 ‘김치벨트’가 선정,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김치산업 관련 인프라와 미식 자원을 활용해 ‘김치가 예술인 광주미식여행’ 관광상품을 제안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할 미식관광 상품은 테마별로 목표를 설정해 개인 관광객부터 단체 관광객까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대통령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김치여행’(단체형, 2박3일), ‘예술+오감만족 김치여행’(1박2일), ‘금쪽같은 내새끼랑 김치여행’(1박2일), ‘햇플따라 즐기는 김치여행’(당일) 등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김치축제, 김장대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다양한 행사와 미식관광을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고 입맛까지 사로잡을 계획이다.

오는 4월 체험·해설 프로그램 구성,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프리미엄 미식관광상품으로 고도화 과정을 거쳐 5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대표 미식의 도시이고, 미식은 관광산업의 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과 K-미식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 큰 콘텐츠이다”며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김치·김장 등 우수한 문화유산, 지역의 명인·체험시설, 맛집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미식관광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5일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오픈콘서트홀에서 ‘2025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광주와 서울 시민을 비롯해 광주 출향민들이 대거 참석 축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선포식에서 축제의 도시, 관광상품 및 프로모션 제공, 관광인프라 확충, 불입 조성, 마케팅 등 ‘광주 방문의 해’ 5대 추진 전략(14개 실행과제)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관광 안내 기반 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광주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력적인 구호(슬로건)를 개발하고 기념품 제작, 인플루언서·유명인 활용 마케팅, 방문의 해 선포식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도, 3월 친환경농산물 여수 ‘유기농 방풍’ 선정

전남도는 여수 남면에서 자란 ‘유기농 방풍’을 3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풍은 증풍 예방은 물론 면역력 강화, 해독작용, 항염 효과, 혈액순환 개선 등에 효능이 있다. 나물반찬, 장아찌, 차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이듬 또한 바람을 막는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여수 남면은 국내 대표적 방풍 재배지다. 여수 방풍 재배면적(113ha) 중 친환경 방풍은 3ha(유기농 2.3ha·무농약 0.7ha)이다.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2012년 가족과 함께 고향 여수로 귀향한 윤은원씨(49)는 부모님과 함께 방풍 농사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2015년 무농약 인증을 취득했고, 2018년 유기농 인증까지 획득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기농 방식으로 방풍을 재배하고 있다.

초기 친환경 방풍 농사를 시작하며 잡초 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농업자재 지원, 재배기술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 재배 기반을 마련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

유기농 방풍은 2.3ha에서 연간 약 7t이 생산되며, ‘초록마을’, ‘두레생협’ 등을 통해 일반 방풍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bul@

전남도, 관광콘텐츠 경쟁력·우수성 입증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서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

전남도의 축제 등 관광콘텐츠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우수상을 받은데 이어 이번 대상 수상으로 전남의 축제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인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역점 추진한 명랑대첩축제와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로서 위상을 입증

받아 전국 77개 참가 지자체 가운데 최고상 영예를 안았다.

또 부산벡스코에서 3일간 열린 이번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으로 부스를 마련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는 전국 우수 지역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형 박람회로, ㈜한국전시산업원 등이 공동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축제 전문 전시회다.

전남도는 목포시, 담양군, 고흥군, 장흥군, 영암군 등 5개 시·군과 함께 도시·군 공동 홍보관을 운영,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2026 여수섬세계박람회, 명랑대첩축제,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등을 중심으로 전남의 대표 콘텐츠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이 하나 된 전남의 매력적 축제를 전국에 널리 알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남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관광 플랫폼을 적극 연계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bul@

도,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청

산업부 등 실사단 현지실사 현장 점검·기업 간담회 등

전남도는 24일 여수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지 실사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실사는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관과 실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실사단은 여수 국가산업단 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여수시청에서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위기 상황 종합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전남도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산업 패러다임 전환,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으로 여수 석유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때문에 지역경제 전반과 고용 환경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역



전남도는 24일 여수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지 실사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설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여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위기 대응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으며, 지난 1월에는 도지사 직속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추진단’을 신설해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고용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예비비 3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실사를 통해 지역의 현실을 면밀히 확인해 여수가 반드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

라”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여수가 다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는 향후 산업위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정 시 2년간 석유화학 산업 관련 기업에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산업부, 여수시, 지역 기업,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bul@gwangnam.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공기청정설상군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쿠팡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